

## 본당 소식

### 2025년 2월 교황님 기도지향 : 사제성소와 수도성소

교회 공동체가, 사제 생활과 수도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에 봉사하라는 부르심을 받는 젊은이들의 바람과 의문을 환영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7주일입니다. 지극히 인자하신 아버지 하느님께서 외아드님을 통하여 조건 없는 사랑을 밝혀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우리에게 잘못된 이도 축복하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 ♣ 꾸르실료 교육 참가

- 유럽 한인 꾸르실료 사무국에서 주관하는 이번 '유럽 한인 혼성 제4차 꾸르실료 교육'(2월 27일~3월2일)에 저희 본당에서 정명용 미카엘 형제님, 우윤정 마리아, 장세란 세실리아 자매님께서 참가하십니다.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 모임/회의

- 청년회의: 다음 주일(3/2) 미사 후, 오라토리오

#### ♣ 봉사자

- 계단, 확장실: 김우진 크리스티나

####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236,20€ • 교무금 260,00€

### 전례 성가

입당: 443 (자애로우신 주님)

봉헌: 514 (주여 대령했나이다)

성체: 169 (사랑의 성사), 170 (자애로운 예수)

파견: 401 (주를 찬미하여라)

### 전례 봉사

이번 주일(2월 23일)	다음 주일(3월 2일)
1독서: 김우진 크리스티나	1독서: 박세아 루치아
2독서: 안소현 아녜스	2독서: 박동현 요한보스코
복 사: 강윤이 스텔라, 안태리 소화데레사	복 사: 정아인 레나, 강윤이 스텔라

##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 사목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부회장: 김재의 미카엘 ·총무: 박건욱 레오
-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성모회장: 김효경 릿타 ·외교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 1구역장: 유정연 릿타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3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 2025년 2월 23일 (녹) 연중 제7주일

### 미사 전례

#### 본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의 뜻을 새기고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화답송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로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
-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시네. 아버지가 자식을 가여워하듯,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 가여워하시네. ☉

#### 제1독서 (사무엘기 상권 26,2.7-9.12-13.22-23)

그 무렵 2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부하 삼천 명을 거느리고 지프 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아 그곳으로 내려갔다.  
7 다윗은 아비사이를 데리고 밤을 타서 군대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때 사울은 진지 안에서 머리맡 땅바닥에 창을 꽂아 놓고 잠들어 있었다.  
아브네르와 그의 군사들도 사울을 둘러싸고 잠들어 있었다.  
8 아비사이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오늘 원수를 장군님 손에 넘기셨으니,

이 창으로 그를 단번에 땅에 박아 놓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9 그러나 다윗이 아버사이를 타일렀다. “그분을 해쳐서는 안 된다.  
 누가 감히 주님의 기름부음받은이에게 손을 대고도 벌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12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다.  
 주님께서 그들 위에 깊은 잠을 쏟으시어 그들이 모두 잠들었기 때문에,  
 다윗을 본 사람도 알아채거나 잠을 깬 사람도 없었다.  
 13 다윗은 맞은쪽으로 건너가 상대와 거리를 멀리 두고  
 산꼭대기에 서서, 22 응답하였다.  
 “여기 임금님의 창이 있습니다. 젊은이 하나가 건너와 가져가게 하십시오.  
 23 주님은 누구에게나 그 의로움과 진실을 되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임금님을 제 손에 넘겨주셨지만,  
 저는 주님의 기름부음받은이에게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2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15,45-49)

형제 여러분, 45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인간 아담이 생명체가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46 그러나 먼저 있었던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그다음입니다.  
 47 첫 인간은 땅에서 나와 흙으로 된 사람입니다.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48 흙으로 된 그 사람이 그러하면 흙으로 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분께서 그러하시면 하늘에 속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9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복음** (루카 6,27-38)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7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 주고,  
 28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29 네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네 겹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두어라.  
 30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31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32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33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 주는 이들에게만 잘해 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34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꾸어 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꾸어 준다.  
 35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36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37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38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를 살피 주시어, 주님의 온유와 자비를 전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2.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통치자이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식별의 은총을 주시어, 살기 좋은 나라와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힘쓰며 가난하고 힘없는 이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게 하소서.
3. 소외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의 샘이신 주님, 갖가지 편견으로 소외받는 이들을 도와주시어,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 주시고, 저희 모두 열린 마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게 하소서.
4.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된 행복을 주시는 주님, 저희 지역 사회의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서로 배려하고 다 함께 사랑의 마음을 전하며 정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이 거룩한 제사에서 구원의 보증을 받았으니  
 저희가 실제로 그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